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영향

김미영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한국현대문학 전공

peace6539@hanmail.net

- I. 투르게네프를 애독한 채만식
- II.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영향
- III. 채만식 문학과 투르게네프 문학의 낙차

I. 투르게네프를 애독한 채만식

1920-1930년대 조선문단에서는 최남선, 이광수 중심의 민족주의적 문학론과 카프를 중심으로 이념과 조직을 앞세운 프로문예운동이 강력한 주류 문학론이었다. 채만식(蔡萬植, 1902-1950)은 민족주의라는 당위론에 입각한 내셔널리즘적 문학론이나 노동자해방이란 이념 우위의 문학관을 모두 비판하고, '관찰과 시찰'이란 냉정한 시각을 무기로 인정과 세태를 풍자한 작품들을 내어놓아 독자적인 부르주아 리얼리즘문학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그는 이광수, 염상섭, 이효석, 이태준 등과 어깨를 견주며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채만식 문학의 핵심은 천민 자본주의화하던 식민지 조선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와 사회주의 사상에 젖은 나약한 지식인의 불안정한 면모를 냉소적으로 비판한 데에 있었다.¹⁾ 채만식의 문학을 관통하는 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풍자의 정신, 허무주의적 세계관이다. 어휘력과 유장한 말문장의 묘미, 물 흐르듯 자연스런 서사의 전개, 서정적인 자연풍경과 농촌정경에 대한 묘사에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낸 채만식 문학은 이광수의 교훈성과 종교적 색채, 염상섭의 민족과 노동현실에 대한 가치중립적 객관 묘사나 1920-1930년대 조선문단에 몰아친 광풍 같았던 프로문예वाद도 구별되는 독특한 리얼리즘으로 한국근대문학의 자장을 확장해갔다.

* 이하 채만식의 글(작품)을 창작과비평사에서 1989년에 발간한 『채만식전집 1-10』에서 인용한 경우 주석 처리는 『전집 1』 등과 인용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 채만식의 등단작은 「세 길로」(『조선문단』, 1924)이다. 20대의 그는 「병조와 영복이」(『별건곤』, 1930), 「양탈」(『신소설』, 1930), 「산동이」(『신소설』, 1930) 등의 경향성이 강한 작품들을 발표하였고, 서른을 갓 넘긴 1933년경에는 《조선일보》에 첫 장편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연재하였다. 그의 고유한 문학적 색채가 잘 드러난 「레디-메이드 인생」(『신동아』, 1934)과 「명일」(『조광』, 1936) 등은 1934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1936년 조선일보사 기자직을 그만둔 그는 조혼한 아내 '은선홍'을 버리고 16세 연하 '김씨영'을 새 아내로 맞아 개성에 살림을 차리고 전업작가로 나선다. 이 무렵부터 1940년까지 대표작인 「탁류」(『조선일보』에 1937년 연재), 「천하태평춘」(『조광』에 1938년 연재), 「치숙」(『동아일보』에 1938년 연재), 「소망」(『조광』에 1938년 연재), 「정자나무 있는 삽화」(『농업조선』에 1939년 게재), 「냉동어」(『인문평론』에 1940년 연재) 등이 발표되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서 해방에 이르는 기간은 그의 삶과 문학에 각별한 흔적을 남겼는데, 해방 직후 그는 8·15의 실질적 의미를 따져 묻는 「낙조」(『잘한 사람들』에 수록, 1948)를 발표하였고, 대일협력의 과거로부터 놓여나기 위해 자기비판 문학인 「민족의 죄인」(『백민』, 1948. 10·11)을 내어놓았다. 이들은 회곡 및 기타 산문들과 함께 1989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채만식전집 1-10권』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채만식은 주력 장르인 소설과 희곡 외에도 문학평론을 비롯한 기행문, 시사비평, 생활에세이 등 비(非)허구적 산문을 많이 썼다. 그런데 235편에 이르는 이런 산문에는 외국작가나 예술가, 철학자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채만식은 수필에서 음악, 미술, 영화, 건축 등, 소위 근대적인 신문화나 서구유럽의 예술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가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에 유학을 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1920-1930년대에 활동한 유학과 출신 예술가의 수필에 모던(Modern)한 문물과 근대적 문화 혹은 예술에 매혹됨 혹은 선망함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서구적 근대문물의 상징처럼 간주되던 커피나 클래식 음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고²⁾, 모보(모던보이)나 모걸(모던 걸), 신여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³⁾ 오히려 그는 당시 조선의 빈한한 농촌풍경이나 시골정취 혹은 기억 속 아스라한 어릴 적 고향의 모습 등에 대해서 빼어난 언어감각과 출중한 어휘력을 동원하여 매우 서정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그의 붓이 닿으면 인정(人情) 또한 자연의 일부인 듯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져 아름답게 형상화됨을 목도할 수 있다.

도쿄 유학 후 채만식은 1925년 이후부터 1937년까지 약 12년간 동아일보사, 개벽사, 조선일보사에서 저널리스트나 에디터로 근무하였다. 즉, 그는 근대적인 직무현장을 경험한 모던한 인텔리였다. 그런 그가 외부에서 도래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 문화나 풍물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조선에 만연하던 기성의 인식체계나 사회질서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조롱하고 있음은 이채롭다. 산문들에서 그가 신뢰하고 있는 가치는 오직 자신이 경험한 감각적 진실들뿐인데, 이런 사실은 채만식 문학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nihil리즘임을 말해준다. nihil리즘은 본질적으로 기성의 사상이나 철학, 관습과 사회질서 등, 주류담론체계의 인식 틀을 전면 부정하는 특징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채만식 문학의 nihil리즘적 특징이 러시아 문호인 투르게네프의 영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을 밝히고자 한다. 투르게네프(Ivan Sergeyevich Turgenev, 1818-1883)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애독

2) 채만식, 「다방찬(茶房讚)」, 『조광』(1939. 7.), 『전집 10』, 360쪽.

3) 채만식, 「연애의 도구와 생식의 도구로」, 『여성』 4권 3호(1939. 3.), 『전집 10』, 576쪽.

된 러시아 작가로⁴⁾, 무엇보다도 채만식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작가였다. 서구의 예술가나 작가를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채만식이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국작가가 투르게네프이다.⁵⁾ 예컨대, 「투르게네프와 나-무의식적 영향」에서 그는 투르게네프의 소설은 거의 다 읽었으며, 투르게네프가 “변변치 못한 나의 금일을 있게 한 소인”이라 밝히고 있다.⁶⁾ 또 「작가작품연대표(作家作品年代表)」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작가는 투르게네프이며, 가장 애독하는 외국소설은 투르게네프의 『엽인일기(獵人日記)』라고 말하고 있다.⁷⁾ 1940년 『삼천리』에서 행한 작가들의 ‘작품 애독(作品 愛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는 특별히 투르게네프의 단편들을 좋아함을 거듭 밝혀놓았다.⁸⁾ 「작품권의 변」에서는 자신은 투르게네프의 작품을 ‘엔조이’한다고 했으며⁹⁾, 「문학을 나처럼 해서는」에서는 자신은 투르게네프의 문학을 10대부터 읽었으며, 『엽인일기』는 4-5회나 읽었다고 적시하고 있다.¹⁰⁾ 한 작가의 작품집을 4-5회나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은 그 작가에게 그 작품집은 일종의 작업교과서에 해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만식 문학의 리얼리즘은 인정과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니힐리즘적 세계관, 창작 기법으로서 풍자를 요체로 한다.¹¹⁾ 그런데 이들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말하는 투르게네프 문학의 특징들이기도 하다.¹²⁾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 3대 문호인 투르게네프는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하였고, 사랑과 같은 인간 보편의 문제에 러시아의 특수한 시대사적 과제를

4)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 『한국근대문학의 러시아문학수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59쪽; 엄순천, 「한국문학 속의 러시아문학」, 『인문학 연구』 제35권 1호(2008), 100쪽.

5) 채만식, 「작가 단편 자서전」, 『전집 9』, 502쪽; 채만식, 「문인 멘탈리스트」, 『전집 9』, 499쪽.

6) 채만식, 「투르게네프와 나-무의식적 영향」, 《조선일보》, 1933년 8월 26일자, 『전집 9』, 467쪽.

7) 설문, 「作家作品年代表」, 『삼천리』 제9권 제1호(1937. 1.), 239쪽.

8) 설문, 「作品 愛讀 연대표」, 『삼천리』 제12권 제6호(1940. 6.), 173쪽.

9) 채만식, 「작품권의 변」, 『매일신보』, 1940년 3월 26-28일자, 『전집 10』, 185쪽.

10) 채만식, 「문학을 나처럼 해서는」, 『문장』(1940. 2.), 『전집 9』, 534쪽.

11)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태학사, 1998); 신두원, 「풍자와 니힐리즘적 부정 정신의 안과 밖-채만식론」, 황폐강 외 공편, 『한국문학작가론 4-근대의 작가』(집문당, 2000); 김윤식, 「채만식의 문학세계」, 『채만식』(문학과 지성사, 1984);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역락, 200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2) D. S. 미르스끼 저, 이항재 역, 『러시아문학사』(문원출판, 2001), 225-242쪽.

교직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혁기 러시아의 새로운 역사주체로서 이상적인 혁명가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 장편창작에서 그러한 바람을 실현하는 데 대부분 실패하였고,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지식인들의 깊은 니힐리즘적 세계관을 친착한 부분에서 남다른 성취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례로 그의 대표 장편인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바자로프’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존재자, 즉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존재자만이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것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비극적 세계관의 소유자인데¹³⁾, 이 작품은 ‘니힐리즘’이란 개념의 세계적 확산에 공헌하였다.¹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니힐리스트 ‘바자로프’의 세계관은 여러 산문에 드러난 채만식의 내면세계와 매우 닮아 있다.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러시아성(性)에 대한 탐구¹⁵⁾와 러시아 변혁의 방향 모색, 러시아 대자연에 대한 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채만식은 전통적인 농촌지주의 변형인 일제강점기 근대조선의 부르주아 계층의 해체과정이나, 8·15해방이 조선의 사회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선의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에 대한 현실 추수적인 인물의 비판적 인식 등을 문학적 주제로 삼고 있다.

수필에서 채만식은 투르게네프처럼 농촌이나 시골 풍경에 대한 서정적 묘사와 언어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감각을 내비치고 있다. 즉, 시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투르게네프와 채만식의 문학세계는 풍자라는 기법과 니힐리즘적 세계관, 언어감각과 자연친화적 성향에서 근접해 있고, 자민족의 역사발전단계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주체로서 농민에 대한 인식,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닌 혁명가에 대한 대담론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작가적 개성에서는 상당히 근접해 있지만, 역사적·민족적 특수성과

13) 최인선, 「니힐리즘: 새로운 지식인의 형상: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노어노 문학』 제27권 제3호(2015. 9.), 119-146쪽.

14) 마르틴 하이데거 저, 박찬국 역, 『니체와 니힐리즘』(철학과 현실사, 2000), 21쪽.

15)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수기』의 첫 작품인 「호리와 칼리니치」에서 러시아성(性)에 대한 탐구와 반(反)농노제란 주제를 동시에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발견한 러시아성은 ‘호리’와 ‘칼리니치’의 상반되는 성격에 녹아 있는데, 호리는 실제적이며 적극적이고 일처리에 적합한 두뇌를 가진 합리주의자이고, 칼리니치는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자이자 무슨 일이나 감동하기 쉬운 공상가로, 아픈 환자를 주문을 외워 고치기도 하고 풀벌을 능숙하게 다루는 등 자연친화적인 인물이다. 투르게네프는 둘 모두에 러시아인의 특성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를 긍정적으로 그렸지만, 호의는 칼리니치 쪽을 향해 다소 기울어 있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이가 확인된다.

이상의 약술에서 채만식의 문학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었다.¹⁶⁾ 이 글은 채만식의 문학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영향을 세세히 살핌으로써, 채만식 문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근대소설 형성기에 행해진 러시아문학과 한국근대문학의 내적 교류에 대한 실상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영향

1. 인물 중심의 서사와 풍자 기법의 활용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러시아문학을 특별히 애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러시아문학이 어떤 나라의 것보다 많이 번역되어 애독되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¹⁷⁾ 이유는 먼저 사회주의 혁명의 나라인 러시아의 문예가 19세기 후반부터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고골리, 고리키, 체호프 등 세계적인 문호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문학을 통해 시대와 역사에 밀착된 러시아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인간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탐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문학이 지닌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질은 허무주의적 정조와 우울한 분위기는 국권상실기의 조선인들에게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러시아문학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작가들에게 매혹적인 향유의 대상이자 효칙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

16) 투르게네프의 문학과 한국 근대작가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염상섭, 이태준, 현진건의 작품과 비교한 것들이 있다. 도건명, 「廉想涉의 「三代」와 투르게네프의 「父子」의 作中人物對比 研究: 社會的 葛藤樣相을 中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2.); 조정희, 「廉想涉의 「三代」와 투르게네프의 「父子」對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류인순, 「〈표본실의 청개고리〉의 비교문학적 연구」, 『이화어문논집』 5(1982); 이탄미, 「이태준 연구」, 중앙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손성준, 「투르게네프의 식민지적 변용: 〈사냥꾼의 수기〉와 현진건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54호(2014, 4.).

17) 엄수천(2008), 앞의 논문, 97-104쪽.

로 러시아문학은 한국근대문학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⁸⁾

러시아문학의 한반도 유입은 1910년대에는 시가, 1920년대 이후에는 소설이 중심이었다.¹⁹⁾ 소설은 고골리나 고리키, 도스토옙스키에 비해, 투르게네프나 체호프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어 읽혔다.²⁰⁾ 이유는 이들의 문학이 보다 서정적인 문체에, 아름다운 농촌과 전원 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다.²¹⁾ 특히 러시아 중단편소설에 대한 조선인의 선호가 뚜렷했다. 이는 장편들은 대부분 사회성 짙은 시대물로서 러시아적인 요소가 강하고, 번역과 전체 게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으며, 일제의 검열이란 외압의 표적이 되기도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러시아 문학의 조선어 번역은 일본어 판의 중역이 대부분이어서 조선어 번역 대상작은 이미 일본에서 대중성이 검증된 작품들에 한정되었던 사실²²⁾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꾸준히 대중적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러시아 작가는 「첫사랑」과 「산문시집」을 쓴 투르게네프였다.²³⁾

수천 명의 농노를 거느린 대지주 출신이었지만 유럽을 떠돌며 방랑객의 삶을 산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농노해방 등 러시아의 당면과제에 대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시각, 유럽적인 모던한 감각과 러시아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 인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에서 배태된 섬세한 이해,

18) 투르게네프의 시 50여 편을 번역하여 1930년대 중반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라는 번역서를 낸 김억의 노력은 제자 김소월과 윤동주로 이어져 투르게네프 시의 '스왓-쓰로우'가 조선 전통의 한(恨)의 정서를 더 깊고 융숭하게 하여 1930년대 조선순수시단의 서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2016), 앞의 책, 86쪽.

19) 엄순천(2008), 앞의 논문, 97-100쪽.

20) 엄순천(2008), 위의 논문, 99쪽.

21) 톨스토이의 작품도 많이 번역되었는데, 이는 종교적인 측면이 결부된 교훈성 강한 작품들이 조선인에게 어필했기 때문이었다. 엄순천(2008), 위의 논문, 101쪽;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2016), 앞의 책, 59-60쪽.

22) 이종진, 「한국문학의 도스토옙스키 수용과 그 현재적 의미」, 『인문과학』 29집(1999), 310쪽.

23) 투르게네프는 소설, 산문시, 희곡 등을 다채롭게 창작한 작가로, 농노해방과 러시아 혁명의 격변기에 오을 지방 스파스코예 영지에서 대지주 아들로 태어났다. 베를린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 등 유럽을 많이 여행하였고, 1856년부터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살았다. 2,000여 명의 농노를 포함한 대토지를 상속받아 대지주가 된 그는 유럽의 다양한 지역을 방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살았다. 이항재, 『소설의 정치학: 투르게네프 소설 연구』(문원출판, 1999), 13쪽.

자연친화적 정서가 특징적이다. 농노해방이나 혁명과 같은 당대 러시아 사회문제에 대해서 그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좌우의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풍자를 단행하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귀족 출신의 자유주의자와 잡(雜)계급 출신의 민주주의자 간의 갈등이나, 농노해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대립, 니힐리즘과 인민 민주주의적 운동 등의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에도 특별한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청춘남녀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와 그것을 적절히 교직하여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재현, 변치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빼어난 묘사, 인류보편의 문제인 사랑이란 문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 등은 투르게네프 문학의 진수로 일컬어지는 요소들이다.²⁴⁾ 창작방법 면에서 그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풍자의 기법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²⁵⁾ 필자가 읽은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톨스토이에 비해 덜 권위적이고, 도스토옙스키에 비해 덜 사변적이며, 덜 슬라브적이다. 그러면서도 흐름은 더 자연스럽고, 시각은 더 자유로우며, 전반적으로 더 낭만적이며 대중적이다.

투르게네프의 작품은 김억 등에 의해 소설보다 시가 먼저 번역, 소개되었다. 러시아문학의 경우 역사성에 기초한 장편소설에 비해 시는 상대적으로 순수예술적 성격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가 먼저 번역됨으로써 투르게네프가 지닌 낭만주의적 예술가의 면모가 조선인들에게 먼저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투르게네프의 소설들은 주로 1920년대 중반에 집중 번역되었지만, 『첫사랑』과 『루딘』 같은 작품들은 1920년도에 이미 『조선일보』에 번역되어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첫사랑』, 『봄물결』, 『박행한 처녀』 등은 단행본만 해도 46판 이상을 찍었을 정도로²⁷⁾ 투르게네프 문학에 대한 조선인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그런데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장편에서는 러시아의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주제 의식의 문제를 다룬 반면, 중편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사랑과 같은 사적 주제를 많이 다룬 특징이 있다.²⁸⁾ 조선어로 번역된 투르게네프

24) D. S. 미르스끼 저, 이항재 역(2001), 앞의 책, 231-233쪽.

25) 최동규, 『투르게네프 비교문학 비평연구』(한국문화사, 1998), 36-39쪽.

26) 김억, 「내가 感激한 外國作品」, 『삼천리』 제11호(1931. 1.), 42쪽; 노천명, 「女流作家 座談會」, 『삼천리』 제8권 제2호(1936. 2.), 231쪽.

27)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을유문화사, 1988), 443-444쪽.

의 소설들을 보면, 조명희가 번역한 『그 전날 밤』을 제외하면 『첫사랑』과 『봄물결』, 『밀회』 등, 주로 사적 영역을 다룬 중편 연애소설이 많았다.²⁹⁾ 그러나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어로 번역된 투르게네프의 중편 연애소설뿐 아니라, 일본어본이나 영어본의 형식으로 투르게네프의 장편 소설들도 폭넓게 읽었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인 중 투르게네프의 문학을 탐독하고 좋아했던 작가는 채만식 외에도 김억·임화·나도향·김기진·이태준·이광수·이효석·김동인·현진건·신석정·이석훈·계용목·주요한·김동환·노천명·김상용·김환태·김동리 등이 있다.³¹⁾ 특히 변영로, 안병주, 홍양명은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2일자에 수록된 「투르게네프의 작품 중에 어떤 것을 애독하십니까」에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28) D. S. 미르스끼 저, 이항재 역(2001), 앞의 책, 233쪽.

29) 1919년부터 1946년까지 번역된 투르게네프의 소설은 『밀회』, 『첫사랑』, 『박행한 처녀』, 『봄물결』,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등이다(자세한 목록은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2016), 앞의 책, 95쪽의 표 참조. 이 중 『밀회』는 『사냥꾼의 수기』에 수록된 단편으로, 김억과 북극성(방정환) 등이 세 번 번역하였다(김병철, 『서양번역문학는자연표』, 을유문화사, 1978 참조). 『아버지와 아들』은 박영희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역자가 각각 따로 번역하였다. 전작 번역은 『첫사랑』을 홍난파(한일서점, 1921)와 최승일(박문서관, 1926)이 각기 하였고, 최승일은 『봄물결』(박문서관, 1926)도 완역하여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그 전날 밤』은 조명희의 번역으로 《조선일보》(1924년 8월 6일자-10월 26일자)에 78회 연재되었다. 투르게네프의 장편 『On the Eve, 그 전날 밤』(1860)의 희곡 버전은 현철이 『격야(隔夜)』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채만식이 근무했던 개벽사의 잡지 『개벽』 1920년 8월호에 실었다. 『박행한 처녀』는 조춘광 번역으로 1926년 박문서관에서 출간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영한생(詠韓生)의 번역으로 《매일신보》(1922년 9-10일자)에 16회 연재되었다.

30) 삼천리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김억과 김동환은 투르게네프의 『前날밤』에 등장하는 ‘엘레나’에 깊이 감동받았고(설문, 「내가 조와하는 소설 중의 여성」, 『삼천리』 제3권 제12호, 1931. 12, 42-45쪽), 채만식과 같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작가로 투르게네프를 꼽은 임화는 『그 전날 밤』(=『격야』)에 등장하는 ‘엘레나’가 낡은 인습을 깨치고 혁명청년인 ‘인사로프’를 따라나서는 열정과 지성과 의지의 인물이라면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찬미하였다(임화, 「투르게네프가 만든 영원한 엘레나」, 『조광』 1936. 2.; 박정선 편,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임화 산문선집), 역락, 2012, 257-257쪽). 또한 투르게네프 사후 50주년이던 1933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매일신보》가 투르게네프 특집호를 꾸렸는데, 당시 《동아일보》에 수록된 글에서 함대훈은 러시아 사회사를 반영한 투르게네프의 6대 역작 『드미트리 루진』, 『귀족의 집』,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 『연기』, 『처녀지』를 소개하고 투르게네프가 창안한 두 지식인상인 ‘루딘’과 ‘바자-롭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다(함대훈, 「투르게네프의 藝術과思想哲學, 그의 死後 五十年祭에 際하여」, 《동아일보》, 1933년 8월 20일자).

31) 좌담회, 『女流作家 座談會』, 『삼천리』 제8권 제2호(1936. 2.); 설문, 『作家作品年代表』, 『삼천리』 제9권 제1호(1937. 1.).

밤』(혹은 같은 작품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인 『전야(前夜)』)을 애독작으로 꼽았다.³²⁾ 이태준도 같은 날 발간된 《조선일보》에 수록된 「투르게네프와 나와(1) 선 굵은 주인공들」이라는 글에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감명 깊게 읽은 작품으로 꼽았으며, 김억도 「〈전야〉의 깊은 감명」에서 그러했다.³³⁾ 안서 김억은 그전에 이미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외롭 은 허무의 세계에서 이 현실을 내려다보는 그(투르게네프의) 눈이 언제나 나의 심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톨스토이의 『부활』도 있지만, 기실 자신에게 감화를 준 작가는 투르게네프임을 천명했었다. 투르게네프의 시를 많이 번역한 김억조차도 투르게네프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접한 일본어판 『그 전날 밤』이었던 것이다.³⁴⁾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은 일본 작가 구스야마 마사오가 희곡으로 각색·번역하였는데, 조선에서는 현철이 『격야(隔夜)』라는 제목의 희곡으로 번역하여 『개벽』(1920. 6.-1921. 3.)에 연재하기도 했던 작품이다. 이런 사실들에서 대체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중들은 투르게네프의 「밀회」, 『봄물결』, 『첫사랑』 등 중단편을 애호한 반면, 지식인들은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과 같은 장편에 그려진 자유주의적이고 이상적인 혁명가상에 매혹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하지만 작가인 채만식은 특이하게도 투르게네프의 단편들을 좋아했다. 이는 그의 개인적 취향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애독한 투르게네프의 단편집은 『엽인일기(獵人日記)』였다. 『엽인일기』는 투르게네프의 초기 대표작 『사냥꾼의 수기』(1852)의 일본어 번역본이다.³⁶⁾ 25편의 단편모음 집인 『사냥꾼의 수기(=엽인일기)』는 투르게네프란 이름을 러시아문단에

32) 설문, 「투르게네프의 작품 중에 어떤 것을 애독하셨습니까」,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2일자.

33) 《조선일보》, 1933년 8월 22일자.

34) 김억, 「내게 감화를 준 인물과 그 작품-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이었지요」, 《동아일보》, 1932년 2월 28일자; 박경수 편, 『안서 김억 전집 5-문예비평론집』(한국문화사, 1987), 777-779쪽.

35) 투르게네프의 초기 대표작에는 『잉여인간의 수기』(1850)와 『사냥꾼의 수기』(1852)가 있다. 『사냥꾼의 수기』의 성공 이후 그는 『루딘』(1856), 『귀족의 보금자리』(1859), 『그 전날 밤』(1860), 『첫사랑』(1860)과 『아버지와 아들』(1862)을 발표하였다.

36)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어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909년에 이미 『엽인일기(獵人日記)』란 제목으로 완역 출간되었고, 이후 다른 역자에 의해 여러 차례 재번역되었다(손성준(2014. 4.), 앞의 논문, 343쪽의 각주 23). 필자가 확인한 것은 국회도서관 소장본인 투르게네프(ツルゲーネフ) 著, 中山省三郎 譯, 『獵人日記 1-3』(東京: 岩波書店, 昭和15(1940))인데, 이 역시도 25편의 단편 전체 완역이었다.

각인시킨 첫 작품집으로, 투르게네프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형상화된 적이 없는 러시아 농노와 농민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따뜻하고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여 러시아의 오랜 폐습인 농노제 폐지에 불을 지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⁷⁾ 이 작품집을 관통하는 화자 '나'는 낙향한 젊은 지주인데, 멧닭과 꿩 사냥을 하러 숲과 들판을 누빈다. 사냥을 돕는 농노와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나'는 간혹 다른 지주 출신의 사냥꾼들과 동반사냥을 하기도 한다.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농노들과 농민들, 또 의사와 같은 중인(中人)들을 만난다. 각각의 단편은 1인칭 화자가 농노나 농민, 의사 등을 만나서 겪은 일과, 그들의 내력과 삶의 애환,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격 등을 관찰 기록한 수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단편집은 각 편의 중심인물은 달라지지만 그들을 기록하는 중심화자는 동일한, 옴니버스식 연작집 형식을 띠고 있다.³⁸⁾

채만식과 투르게네프 소설의 친연성은 우선, 서사에서 인물(성격)의 비중이 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이나, 『탁류(濁流)』의 '초봉이', 「치숙(痴叔)」의 '오촌 고모부', 「낙조(落照)」의 '황주 아주머니'와 '박재춘', 「정자나무 있는 삽화」의 '관수', 「소망(少妄)」의 '남편'이란 캐릭터들은 서사의 중심축이다.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에 수록된 「호리와 칼리니치」, 「예르몰라이와 방앗간 여주인」, 「시골 의사」, 「나의 이웃 라딜로프」, 「지배인」, 「크라시바야 메치의 카시안」, 「표트르 페트로비치 카라타예프」 등에서도 화자가 사냥하면서 만난 러시아 농민이나 농노의 캐릭터가 단편을 이끄는 서사의 핵심이다. 투르게네프의 경우 장편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 '바자로프'나, 『그 전날 밤』의 혁명가 '인사로프'와 그를 사랑한 '엘레나'라는 젊은 여성은 서사의 중심이다. 장편 『루딘』이나 『아샤』도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한 인물소설들이다. 또한 투르게네프와 채만식의 소설들은 모두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선명한 대비가 도드라지는 서사 구성을 보이며, 특히 '지주'를 부정적인 인물의 대표 격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

37)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수기』는 「호리와 칼리니치」의 성공에 힘입어, 러시아 농민들의 삶의 지혜와 재능, 성실성과 상냥함, 순박한 태도 등을 형상화한 단편들을 창작하여 1951년 23편을 묶어 출간했다가 1852년에 2편을 추가하여 25편의 『사냥꾼의 수기』를 재출간하였다.

38) 1920-1940년대 조선에서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사상적으로는 장편인 『그 전날 밤』과 『아버지와 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소설작법의 측면에서는 단편집 『엽일기』가 그러했다. 손성준(2014. 4.), 앞의 논문, 333쪽.

다. 투르게네프의 경우, 「지배인」의 ‘소프론’이나 「예르몰라이와 방앗간 여주인」의 ‘즈베르코프’의 예처럼, 농노를 악랄하게 다루는 혹독한 지주들이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등장하는 ‘윤직원 영감’이나, 「낙조」의 ‘황주 아주머니’와 그의 큰아들이자 경찰경부보인 ‘박재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작품 내에서 담당하고 있다. 투르게네프가 활동한 19세기 후반의 러시아나 채만식이 활동한 20세기 초반 조선은 농업에 기반한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의 변화를 피하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양자의 작품에서 풍자 대상으로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은 대개 악독한 지주들이다.

하지만 긍정적 인물에서는 양자 간 차이가 포착된다. 투르게네프의 긍정적인 인물은 『사냥꾼의 수기』에 수록된 「크라시바야 메치의 카시안」에 나오는 ‘카시안’이나 「호리와 칼리니치」에 나오는 ‘칼리니치’처럼 성격이 소박한 농민들이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자연의 소리나 공기의 흐름, 숲속 정령의 소리를 듣는 등, 다소 신비로운 능력을 소유한 낭만적인 성격의 자연친화적인 농민(농노 포함)들이다. 또 『처녀지』의 ‘솔로민’과 같이 분별력 있는 민중 출신의 인물이나, 『그 전날 밤』의 ‘엘레나’나 『처녀지』의 ‘마리안나’처럼 젊은 혁명가들을 사랑한 순결한 여성주인공들이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투르게네프가 러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인이나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닌 혁명가가 아니라, 소박한 농민이나 농노, 건강한 민중, 혁명가를 사랑한 순수한 여성주인공들 때문이었다.

반면,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일단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된 인텔리들이 서사 초반에는 긍정적 인물들로 상정되어 있지만 이들은 미래 조선을 책임지는 주체세력이 되기에는 매우 무기력하게 그려져 있다.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은 현실추수적인 인물들에 의해 심하게 조롱받거나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치숙」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와 폐병을 앓고 있는 ‘오촌 고모부’나,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 손주이자 사회주의적 지식인인 ‘윤종학’이 그러하다. 「낙조」에 등장하는 화자의 제자인 ‘최균’도 미래의 주체세력으로 보기에는 그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이렇듯 채만식의 소설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에 비해 긍정적인 인물의 비중과 존재감이 매우 약해 양자 간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가 많다. 『태평천하』에서 부정적

인 인물은 ‘윤직원 영감’과 그의 아들인 ‘창식’과 ‘태식’, 딸인 ‘서울아씨’, 손주인 ‘종수’와 ‘경손’ 등으로 윤씨네 가솔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우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살아 있는 인물임에 반해,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인 ‘윤종학’은 말미에 잠깐 등장할 뿐이고 성격화도 불분명한 편이다.³⁹⁾ 손에 잡힐 듯 선명한 부정적인 인물들에 비해, 사회주의의 물을 먹은 인텔리 ‘윤종학’은 사실상 서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윤종학’을 지주형 부르주아 계급이 해체된 이후 조선사회의 변혁을 추동할 새로운 주체세력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런 까닭에 채만식은 『태평천하』에서 패덕한 전근대적 지주형 부르주아 일가의 해체과정은 보여주었지만, 새로운 역사의 주체 세력을 상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⁰⁾

투르게네프와 채만식은 모두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된 혁명적 지식인을 긍정적인 인물로 상정은 하였지만, 그들이 꿈꾸는 과업이 작품 내에서 성공적으로 달성되거나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경우는 공히 없다. 투르게네프의 『처녀지』에 등장하는 ‘네즈다노프’는 비밀결사의 역할에 몰두하는 올곧은 혁명가이지만, 실현성 없는 ‘잉여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루딘』에서 박학다식한 인텔리이자 열정적인 혁명가 ‘루딘’도 유랑생활 끝에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프랑스혁명의 시가전에서 무명의 희생자로 사망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바자로프’도 자신이 꿈꾼 바를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는다. 『그 전날 밤』에서 불가리아의 민족해방운동가인 ‘인사로프’는 러시아의 귀족 처녀인 ‘엘레나’와의 사랑은 성취하지만 그녀와 함께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도중 이국땅에서 폐와 동맥류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만다. 이렇듯 투르게네프의 장편들에서 혁명가들은 젊은 지식인들로

39)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정축년(1937) 구월 열××일부터 다음 날 점심때까지 서울 한 모퉁이에 사는 윤직원 영감댁 일가족의 행적을 통해, 농촌지주 출신의 부르주아가 근대화되어가는 조선사회에서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풍자한 작품이다. 윤두섭(1대)-창식(2대)-종수와 종학(3대)-종수 아들 경손(4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집안이 제목처럼 걸으려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폐망과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농촌지주가 서울로 이주하여 부르주아가 되지만, 자손들이 무능(윤주사: 창식)하고 타락(종수와 경손)을 일삼고,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된 손주(종학)는 무기력해 새로운 시대의 기운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서사가 종결되고 있다.

40) 정호웅,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주체의 문제」, 『외국문학』 18(열음사, 1989. 3.), 232-248쪽.

열정적이고 신념에 차 있지만 대체로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모두 일찍 사망하는 특징이 있다.⁴¹⁾

채만식의 소설에서는 긍정적 인물이나 부정적 인물이 모두 풍자⁴²⁾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인물)소설이랄 수 있는 그의 작품들은 인물과 세태에 대한 풍자가 귀착점이지, 긍정적인 주체의 출현으로 변혁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데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영감’의 빠른 셈법에도 불구하고 윤주사 등 가솔들의 방탕함 때문에 가산이 손가락 새로 새는 모래같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윤직원 영감은 “이따가 저녁에 춘심이를 사랑하게 될 행복”에 젖어 “침이 흥건히 괴어 방금 뚜우 오정소리를 듣고도 이어 점심을 먹으려 들어갈 여념이 없이 술에 취하듯 폭신 취해 버렸습니다”라고 묘사함으로써⁴³⁾ “나만 빼고 다 망해라”라는 신조를 가진 윤직원 영감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윤직원 영감이 선조 때는 화적패에게 당해 가세가 휘청거렸는데 지금은 사회주의라는 부랑당패에 ‘참섭’을 당하게 되었다며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그런 윤 영감을 쳐다보는 가권들이 암담하고 어두운 면상을 짓는데, 그들에 대해 작가는 “창수의 주검을 만난 군졸들 같았다”고 묘사함으로써 윤직원 영감네 가솔들 모두를 한꺼번에 풍자하기도 한다.⁴⁴⁾ 「치숙」에서는 화자인 조카가 ‘오촌 고모부’에 대해 “사회주의라더냐, 막덕이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이라며 빈정거리고,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제는 기껏 해먹을 거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보통학교 사 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흰히 트인 내게다 대면 고쓰까이만도 못하지요”라며 풍자한다.⁴⁵⁾

『잘난 사람들』(1948)에 수록된 「낙조」에서는 작가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화자 ‘나’에 대한 자기풍자를 ‘황주 아주머니’의 둘째딸 ‘춘자’를

41) 최동규, 「영웅의 사랑과 죽음: 『그 전야(前夜)』의 주제구성」, 『세계문학비교연구』 제 54권(2016).

42) 풍자란 대상의 인간적 약점, 미흡함, 고통 등의 부정적 속성을 과장 또는 회화화함으로써 건강한 웃음을 유발하여 그 명량함 속에서 부정성을 초극해가는 건강한 조롱 혹은 희극적 부정의 기법을 말한다. 대개는 문학작품에서 사회의 부정적 현상, 인간들의 결점이나 모순점 등을 웃음에 빚대어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에 활용된다. 김병욱의 엮음, 『도이치 문학 용어 사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739쪽.

43) 채만식, 「태평천하」, 『동지사』(1948. 12. 5.), 『전집 3』, 181쪽.

44) 채만식(1948. 12. 5.), 위의 글, 192쪽.

45) 채만식, 「치숙」, 『동아일보』, 1938년 3월 7-14일자, 『전집 7』, 261-265쪽.

통해서 하고 있다. 파혼과 실연의 상처를 견디지 못해 미군 위안부로 전락한 춘지는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차라리 춘자가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나’에게 “외국놈한테 정줄 팔아먹는 년이 더러면, 외국놈한테 절겔 팔아먹는 서방님네들은 무엇일꾸? [...] 자기가 데리구 가르치는 철없는 어린아이들 더러 왜놈이 되리구 시킨건 누구신구? 조선 말을 내다 버리구, 왜말을 쓰리구 딱딱거린 건 누구신구? 하루두 몇 번씩 황국신민 서살 의무게 하구 [...] 난 양갈보야. 난 ××놈한테 정줄팔아 먹었어. ××놈의 자식 애뻘어. 그러니깐 난 더러년야. [...] 그렇지만서두 난, 누구들처럼, 정신적 매음은 한 일 없어. 민족을 팔아 먹구, 민족의 자손까지 팔아먹는 민족적 정신매음은 아니 했어. 더럽기루 들면 누가 정말 더럽꾸? 이 얌체 빠진 서방님네들아!”⁴⁶⁾라고 조롱한다. “용렬스런 지아비”, “하잘 것 없는 위인”인 초등학교 교원인 ‘나’는 뚜렷한 주관도 없이 시대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민족까지 팔아먹는 ‘정신적인 매음’을 한 것이다. 이 대목은 한때 강화도에서 교편을 잡았고, 일제강점기 말기 대일협력활동을 한 작가 자신에 대한 자기풍자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채만식은 이렇듯 긍정적인 인물이든, 부정적인 인물이든, 세태든, 자기 자신이든, 모든 것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에게 ‘풍자’는 단순한 창작기법이 아니라 작가정신이자 운명이라 평가되기도 한다.⁴⁷⁾ 채만식은 스스로도 『잘난 사람들』의 「후기」에서 작품들에 풍자 기법을 많이 활용하였음을 시인하였는데⁴⁸⁾,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태평천하』, 「치숙」, 「논 이야기」, 「맹순사(孟巡査)」, 「미스터 방」, 「도야지」, 「레디메이드 인생」 등이다.

한편, 투르게네프의 문학에서도 풍자는 중요한 기법으로 자주 등장한다. 『샤랴꾼의 수기』에서 러시아 농민들과 농노들을 인간적으로 형상화하는 대목이나, 희곡 「기생충」, 「미혼남」, 「귀족 단장집에서의 아침식사」 등에서 그로테스크한 유머 감각에서 나타나며, 장편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바자로프’가 지닌 니힐리즘이 인간혐오의 파괴적 측면을 가짐을 풍자한 부분에서도 목도된다.⁴⁹⁾ 채만식이 좋아하는 투르게네프의 『엽인일

46) 채만식, 「낙조」, 『잘난 사람들』(민중서관, 1948), 91쪽.

47) 정홍섭(2004), 앞의 책, 65쪽.

48) 채만식, 「후기」, 『잘난 사람들』(민중서관, 1948), 320쪽.

49) 최동규(1998), 앞의 책, 46-49쪽.

기』(『사냥꾼의 수기』)에 수록된 단편 「두 지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투르게네프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러시아 지주를 등장시켜 각각의 성격화에 주력하면서도 양자를 모두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역 육군 소장 출신의 지주인 ‘호발린스키’는 독신남으로 지독한 수전노이다. 그는 여성을 지구의 장식품쯤으로 여기면서도 대단한 호색한인데,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그는 신랄하고 가혹한 반면,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굽실거린다. 또한 전통적 방식인 매질로 500명이나 되는 농노를 다스리며 영지를 관리하는 또 한 명의 지주 ‘아폴로니치’를 형상화하는 부분 등에서 투르게네프는 지주들을 풍자한다.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아폴로니치’에게 매를 맞는 농노가 주인의 매질을 응당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매질을 수용하자 이를 본 작가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화자 ‘나’는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러시아군!”이라며 지주뿐 아니라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던 러시아 사회 전체를 풍자하는 데로 나아간다. 농노제가 지주뿐 아니라 농노의 인성마저 왜곡시키고 있음을 풍자함으로써 투르게네프는 농노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채만식은 사회주의적 지식인인 긍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실행력의 결여나 인간적인 나약함 등을 속물적인 인물의 관점에서 신랄하게 풍자한다. 작품에서 채만식은 거의 모든 등장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가 인간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게도 만든다. 이런 점이 그의 풍자를 ‘비관주의적인 풍자’로 보게 한다.⁵¹⁾ 투르게네프도 중기작 『그 전날 밤』, 후기작 『연기』와 같은 장편들에서는 ‘참사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 등 장편에서는 젊은 혁명가들은 항상 실패하거나 때 이른 죽음을 맞고 있어, 작가가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모두 부정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수기』에서 건강하고 소박하며 지혜로운 농민과 농노들을 등장시켰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르카디’, 『처녀지』의 ‘마리안나’, 『그 전날 밤』의 ‘엘레나’,

50) 투르게네프 저, 김학수 역, 「두 지주」, 『사냥꾼의 수기/첫사랑/산문시』(동서문화사, 2016), 199쪽.

51) 정홍섭(2004), 앞의 책, 64쪽.

『처녀지』의 ‘솔로민’ 등의 청년들을 러시아 미래의 주역으로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전근대적인 농노제의 폐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긍정적인 결말을 만들어가고 있다.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대립적 구도, 인물 중심의 서사, 풍자의 기법 외에도 채만식이 투르게네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단편모음집의 구성방식이다. 채만식은 생전에 2권의 단편집을 출간했다. 해방 전에는 『채만식 단편집』(학예사, 1939)을, 해방 후에는 『잘난 사람들』(민중서관, 1948)을 출간했다. 만 37세에 펴낸 『채만식 단편집』에는 「생명」, 「빈(貧)·제1장 제2조」, 「동화」, 「이런 처지」, 「소망」, 「쑥국새」, 「용강댁」, 「정자나무 있는 삽화」 등 단편 8편이 실려 있는데, 작품의 배열이 창작 시기나 발표시점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탄생과 성장, 성년 이후의 삶의 순서로 재배열되어 있다. 『채만식 단편집』의 내용은 지주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종인 여성 사이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담은 「생명」에서 시작하여, 궁핍한 소년의 유년기 일화를 담은 「빈(貧)·제1장 제2조」, 주인공이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는 이야기가 「동화」의 내용이고, 「이런 처지」부터는 취업과 결혼, 또 가정생활의 힘겨운 과정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은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또한 채만식이 46세에 펴낸 『잘난 사람들』에는 「낙조」, 「도야지」, 「논 이야기」, 「맹순사」, 「미스터 방」, 「치숙」, 「이런 남매(男妹)」 등의 7편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이르는 기간을 배경으로 조선인들이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단편 5편과 해방 이전에 발표된 단편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된 지식인과 일반 대중 사이의 반목과 불통을 그린 2편의 단편인 「치숙」과 「이런 남매」를 묶은 구성이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의 「후기」에서 작가는 해방 이전이나 이후에 조선인의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해방 전후의 작품들을 함께 묶었다고 밝히고 있다.⁵²⁾ 『잘난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물의 성격이 중심인 단편들의 병렬적 구성, 즉 움니버스식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르게네프의 『엽인일기』의 구성방식과 동일하다.⁵³⁾ 움니

52) 채만식, 『잘난 사람들』(민중서관, 1948), 320쪽.

53) 『채만식 단편집』은 비중이 가장 큰 「정자나무가 있는 삽화」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점장식 구성이고, 『잘난 사람들』은 첫 수록작 「낙조」가 완성도 면에서 가장 빼어나

버스식 단편집 구성은 채만식 못지않게 투르게네프를 좋아한 현진건의 단편집 『조선의 얼굴』(1926)과 이태준의 단편집 『달밤』(193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채만식의 『잘난 사람들』(1948)과 더불어, 각기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조선인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인물 중심의 단편집이다. 『사냥꾼의 수기』의 각 편에는 화자가 사냥하러 다니면서 만난 러시아 농민과 농노들의 삶의 지혜와 재능, 성실성과 상냥함, 순박한 태도가 따뜻한 시각으로 서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에 반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미군정기의 조선인들을 풍자적으로 담은 채만식의 『잘난 사람들』은 일제로부터는 놓여났으나 완전한 자주적 독립국가에는 이르지 못한 조선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유’로서의 ‘해방’은 사실상 지배자가 ‘일제’에서 ‘미군’으로 바뀐 것 이상의 의미 없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짙다. 투르게네프의 『엽인일기』가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갖는 것과 달리, 채만식의 『잘난 사람들』은 풍자로 인한 해학적 장면 이면에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극적 인식과 우울한 정조가 선명해 채만식의 냉소주의와 니힐리즘이 해방공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2. 니힐리즘적 세계관과 ‘봄’으로의 대망

채만식은 수필들에서 니힐리즘적 세계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대 후반에 벌써 “인류와 우주를 잊고, 시간과 소리와 빛까지 모든 삼라만상을 잊은 채, 밀도 끝도 없는 마음만 하염없이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식의 막연한 허무주의적 정조를 드러내었고⁵⁴⁾, 30대 후반에는 “산 채로 죽어서 어깨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도록 산간의 절망을 면벽해 앉았고 싶다”⁵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전업작가로 전향한 후 먹고살기 위한 글을 쓰느라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그는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원하는 작품은 쓰지 못한 채 밥벌이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현실에 절망하여 깊은 허무감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에 시달린 점과 실질적인 이혼으로 복잡해진 가족관계도

점약식 구성을 보인다.

54) 채만식, 「추야단상」, 『학생』 2권 8호(1930. 9.), 『전집 10』, 258쪽.

55) 채만식, 「장원의 백발」, 《동아일보》, 1938년 12월 21일자, 23일자, 『전집 10』, 344쪽.

30대 후반에 이른 채만식이 무위의 존재를 희망하는 지경의 깊은 니힐리즘에 침윤되도록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나 「치숙」, 『태평천하』 등의 작품에서 인물과 세태에 대한 풍자에 묻어 있는 비관적인 인식과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진전도 없이 끝나는 결말들은 이런 허무주의적인 세계인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태평천하』의 경우, ‘윤중학’이란 긍정적 인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끝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태평천하’라는 제목은 태평하지 못한 천하의 도래를 암시하며 끝나는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풍자이고 반어적 표현인데, 그 끝은 니힐리즘에 닿아 있어 끝내 비관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단편집 『잘난 사람들』에서도 격랑과 궁핍의 현실은 신념이나 정의를 지켜내기엔 녹록지 않은데, 작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핑계로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미물로 전락한 인물들의 면면을 세세하고도 실감나게 제시함으로써 허무주의적 세계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치숙」의 ‘나’, 「이런 남매」의 ‘영섭’과 ‘혜련’, 「맹순사」의 ‘맹순사’, 「미스터 방」의 ‘방삼복’, 「도야지」의 ‘문영환’과 ‘최씨 부인’과 ‘명자’, 「낙조」의 ‘황주 아주머니’와 ‘박재춘’ 등, 해방기 조선인의 면면을 제시한 이 단편집에서 작가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못났다 할라치면 저마다 불복하고 노할 인물들이라서 ‘잘난 사람들’이란 제목을 붙였노라 「후기」에 적고 있다. 풍자를 염두에 두면, ‘잘난 사람들’은 ‘저 잘난 사람들’일 뿐, 결국 「도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이 작품집에는 그들을 넘어서는 인물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각 편의 주인공들은 해방의 의미를 개인적인 경제적 득실로 따진다. 이들의 행태를 통해 작가는 ‘해방’이 일부 조선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작가는 해방 이후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방은 통치자가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바뀐 것에 불과한 ‘사건’으로, 조선 사람의 삶의 방식을 흔들어서 혼란만 가중시킨 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 자신도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누가 주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채만식은 「후기」에서 역사는 되풀이될 뿐이라는 인식⁵⁶⁾을 내보이

56) 채만식, 「후기」, 『잘난 사람들』(민중서관, 1948), 320쪽.

는데, 이는 악무한의 순환고리 속에 갇힌 니힐리스트의 사유방식과 다름 없다.

활발한 창작활동을 한 1930년대에 채만식은 KAPF 측의 프로문예나 춘원류의 민족문화 진영을 각기 비판하는 평문도 많이 발표하였다. 거기서 그는 기존의 관념이나 사상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의 이념적 권위를 강조하던 KAPF에 대해 “복자를 구실삼아 xxx을 팔아먹으려는 브로커”라 비판하였고⁵⁷⁾, 도덕적 당위에 입각해 이상적인 인물들을 그려내는 춘원의 교훈적인 문학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⁵⁸⁾ 그는 “남의 집 유모로 들어온 한 여자가 허영이 증강된다거나”, 무지한 여자가 “제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남편한테서 듣고 죽게 되었다는 제 자식의 약값으로 내놓기를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모든 사건을 모모편에 유리하도록 운반하고 모든 인물은 이상화함”은 결국 “추상적 견지”에서 작품을 구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작가는 현실의 기록자이며 냉정한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APF 측의 김용제가 「문학의 건강성과 퇴폐성」에서 모성은 숭고한 것이라면서 “(채만식이 말한) 모성은 금수세계에서도 희유할 존재”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채만식은 ‘부정적 방면’을 포착한 것을 타박하는 비평계의 태도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비겁”이라 맞섰다.⁵⁹⁾

세계적으로 파시즘이란 광풍이 불던 시절에 국권을 상실한 한반도의 문예가 새로운 ‘대타자’ 찾기에 골몰하던 무렵, 채만식은 새로운 ‘대타자’ 대신, 전업 작가로서 관찰과 시찰에 입각한 형상적 인식과 치밀한 구성, 살아 있는 언어와 장인적 문장력을 강조한 실무 중심의 문학론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는 어느 때보다 이념이 승하고 또 필요한 시대였기에 실무적 노력만 강조한 그의 논의가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였다. 탈권위적이고 허세가 전혀 없는 그의 문학론이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학론이 “문학은 적으나마 인류 역사를 밀고 나가는 한 개의 힘”이라던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고 실현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

57) 채만식, 「현인군의 몽(蒙)을 계(啓)함」, 『제일선』(1932. 7-8.), 『전집 10』, 40-49쪽.

58) 채만식, 「문예시감 2」, 《동아일보》, 1936년 2월 13-17일자, 『전집 10』, 73쪽.

59) 채만식, 「가장(假裝)의 과학평론」, 《조선일보》, 1937년 12월 1일자, 『전집 10』, 125-132쪽.

기 때문이다.⁶⁰⁾ 결국 그의 탈이념적인 실무적 문학론은 궁핍과 질병, 억압의 고통이 더욱 거세진 일제강점기 말에 이르면 대일협력에 굴복하는 기원이 된다.

1935년, 신문기자로 일하던 무렵 채만식은 저널리스트인 자신의 처지를 ‘문화적 천민’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여름 석양의 무지개처럼 찬연하던 후광은 희멸끔하게 퇴색이 되었다. 광명의 보지자(保持者) 인류문화의 건설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는 빠가 빠지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주인의 입에 붙은 헛칭찬이다. 그렇건만 반항의 힘조차 타고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워 만족하는 문화적 천민-나 자신 및 그대들”⁶¹⁾이라며 그는 스스로를 일개 ‘두뇌노동자’로 간주하였다. 근대는 지식이 천대받는 시대여서 소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필에서도 세계와 인간에게서 어떤 신뢰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과거 기억 속 고향과 자연에만 아스라한 눈길을 주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는 파시즘이 발호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적인 세계에 대해 “세상은 아직도 기운 센 놈과 험잡꾼이 득세를 하는 판이다. 영국이요 불란서요 미국이요 이태리요 하는 게 그들이요, 간디요 강제석이요 케말파샤요 하는 게 그들이다. 인류는 그래서 아직도 놀리고 속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밟고 넘어가야만 할 타고난 운명이다”라면서 국제조약은 강자가 깨고 싶을 때 깨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애하는 사람 사이의 약속’ 같다고 비판하였다.⁶²⁾ 즉, 채만식은 강대국의 포효 속에서 약소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판단했다.

이런 비판적 인식은 1930년대 ‘금’의 싹누런 광채가 초현실주의적으로 민심을 지배하던 조선의 현실에 대해 발언할 때에도 그 힘을 발휘하였다. 그는 금광은 “추운 날 다리를 걷어붙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월급 칠팔십 전을 받고 일을 해주는 노동자의 노동의 힘-노자의 법칙”에 의해 엄연히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전혀 다른 현실을 목도하면서 금광 붐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라

60) 채만식, 「자작안내」, 『청색지』 5집(1939. 5.), 『전집 9』, 520쪽.

61) 채만식, 「단장 수삼제」, 《조선일보》, 1935년 12월 21-28일자, 『전집 9』, 485쪽.

62) 채만식, 「문학인의 촉감(觸感)」, 《조선일보》, 1936년 6월 5일자, 7-9일자, 13일자, 『전집 10』, 310-314쪽.

고 비판하였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금광을 채굴하는 노동자나 총을 쏘는 군인이나 펜으로 글을 쓰는 문인은 모두 동계의 노동자들이며, 작가인 그에게 문학은 '생화(生貨), 즉 돈벌이이고, 자신은 "변변찮은 소설쟁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니힐리즘적 세계관은 묻어 있다. 채만식의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그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었고, 궁핍한 두뇌노동자였으며, 오랜 질병들과 꼬여버린 가족관계, KAPF와 같은 조직의 외부자로서 평생 활동한 정황, 투르게네프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채만식이 영향을 받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속 니힐리스트 '바자로프'는 "배고플 때 한 조각의 빵을 입에 넣는 데 논리 같은 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추상론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라는 의식의 소유자이다.⁶³⁾ 채만식 역시 "배고프면 밥 먹고 싶지 소설 쓰고 싶지 아니하오"라면서 자신은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프로작가임을 거듭 천명하였다.⁶⁴⁾ 바자로프나 채만식의 이런 비판적 인식은 니힐리즘에서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니힐리즘은 이제까지의 모든 가치로부터 벗어남을 뜻하며,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권위 있는 이념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라틴어 'nichts(無)'에서 온 '니힐(nihil)'이란 단어가 말해주듯, 니힐리즘은 전통이나 권위, 이성에 의해 도달하거나 규정된 것들을 일체 부정한다.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은 '바자로프'라는 니힐리스트를 창안하여 니힐리즘에 관한 논의를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유명하다. 하이데거가 『니체와 니힐리즘』의 서두에서 "니힐리즘이란 말은 러시아인 투르게네프에 의해서 널리 유포되었다"라고 쓴 것도 이 때문이다.⁶⁵⁾ 『아버지와 아들』에 나타난 투르게네프의 '니힐리즘'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존재자,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존재자만이 존재하며,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을 특징으로 한다.⁶⁶⁾

63) 투르게네프 저, 반광식 역, 『아버지와 아들』, 『첫사랑·아버지와 아들』(일신서적출판, 1995), 143쪽.

64) 채만식, 「창작의 태도와 실제-사이비평론 거부」, 《조선일보》, 1934년 1월 11일자, 『전집 10』, 527쪽.

65) 마르틴 하이데거 저, 박찬국 역, 『니체와 니힐리즘』(철학과 현실사, 2000), 21쪽.

66) 마르틴 하이데거 저, 박찬국 역(2000), 위의 책, 17쪽.

일제강점기 투르게네프의 산문시집을 번역·출간한 김억은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회의·침울·탄식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인생은 별 수가 없는 것이니 단념하라는 외로운 허무의 세계에서 현실을 내러다 보고 있는 눈”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⁶⁷⁾ 즉, 니힐리즘에서 배태된 비극적 정조로 본 것이다. 또한 김윤식은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 등의 장편에 나타난 작가의 시대인식과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니힐리즘은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적고 있다.⁶⁸⁾ 투르게네프의 문학을 연구한 최인선은 『아버지와 아들』의 근본사상은 “계몽된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단일한 관념적 체계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니힐리즘이라면서, 거기에는 기성의 “권위적인 가치들을 해체하고 ‘무(無)’를 토대로 새로운 ‘유(有)’를 생성하려는 창조와 자유의 정신이 내재”해 있음을 강조한다. 최인선은 이런 측면에서 투르게네프의 니힐리즘은 새로운 창조적 정신의 발현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⁶⁹⁾

채만식의 니힐리즘도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나 가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니힐리즘은 식민지의 궁핍한 지식인 노동자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배태된 것으로, 예술가로서의 후광이 사라진 시대에 노동자로서 문학인이 처한 열악한 생존조건 때문에 형성된 자조 섞인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채만식의 니힐리즘은 문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50년 사망할 때까지 니힐리즘에서 벗어난 징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내면의 직접 토로에 해당하는 에세이들에서 ‘봄’ 혹은 ‘양춘’에 대한 강한 희망을 자주 피력하였고, 또 해방공간에서는 「역로(歷路)」(『신문학』, 1946)나 「민족의 죄인」(『백민』, 1948. 19.-1949. 1.) 등 자기반성적 작품들을 통해 외부세계가 아닌 내면에 굳건한 윤리적 자아상을 수립함으로써 변화된 현실에서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67) 김억, 「내게 감화를 준 인물과 그 작품-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이겠지요」, 《동아일보》, 1932년 2월 28일자, 5쪽.

6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론』(한길사, 1982), 400-402쪽.

69) 최인선(2015. 9.), 앞의 논문, 119-146쪽.

채만식은 많은 글에서 '따뜻한 봄', '춘양(春陽)'에 대한 갈망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는 “겨울이면 불행했다”면서⁷⁰⁾, “어서 춘양(春陽)이 와지어다. 꽃이야 놀이야 변화한 봄을 즐기려 봄이 오기를 기다림이 아니다. 꽃은 없어도 좋다. 풀이며 벌레며 새로운 생명이 엄뚫고 마주 희롱하는 정경은 없어도 좋다. 다만 따사한 봄 햇볕 그 하나면 만족이다. 기승스런 삭풍이 끊일 줄 모르고 불어친다. 살 속까지 스며드는 이 추위, 하늘은 잔인스럽게도 푸르다. 봄. 가혹할 줄 모르는 봄의 따사한 햇볕. 어서 양춘(陽春)이 와지어다”라고 소리치고 있다.⁷¹⁾ 그런데 투르게네프도 『사냥꾼의 수기』에서 자신의 이상향으로 ‘겨울 없는 나라’를 꼽고 있으며⁷²⁾,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봄을 대망하는 결말로 소설의 마무리를 삼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농노해방이란 논제를 두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입장차를 세계관의 대립으로 풀었는데, 아들 세대가 볼 때 아버지 세대는 공허한 관념에 사로잡혀 농노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아들 세대는 과거의 전통과 권위가 러시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성의 예술, 종교, 철학, 자유주의적 사상과 농노제 등을 비합리적인 낭만주의의 잔재로 몰아 모두 청산하고자 하였다. 투르게네프의 결론은 러시아의 진보는 혁명에 의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자연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하듯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헌신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계급과 세대,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사회라는 전체를 위해 유기적으로 헌신하고 또 동시에 사회 역시 개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때 역사의 진전은 따뜻한 봄날처럼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투르게네프 문학의 결론인 셈이다. 즉, 투르게네프의 문학에서 ‘봄’은 미래의 희망과 진보를 상징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채만식의 반복적인 ‘춘양’의 희구도 그가 미래에 대한 희망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코드로 볼 수 있다.

70) 채만식, 「철조망」, 《매일신보》, 1939년 12월 10일자, 『전집 10』, 385쪽.

71) 채만식, 「가혹할 줄 모르는 그리운 봄빛」, 『여성』 4권 3호(1939. 3.), 『전집 10』, 577쪽.

72) 투르게네프 저, 김학수 역, 「베진 초원」, 『사냥꾼의 수기/첫사랑/산문시』(동서문화사, 2016), 122쪽.

III. 채만식 문학과 투르게네프 문학의 낙차

채만식은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과 「치숙」, 「소망」, 「순공 있는 일요일」 등과 장편 『탁류』와 『태평천하』에서 관찰에 입각한 성격과 인물의 리얼한 형상화, 풍자 기법의 활용,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런 서사전개, 빼어난 언어감각, 활달한 구어체 구사로 자신만의 부르주아 리얼리즘을 보여주었다. 그의 문학세계의 독자성은 부정과 풍자의 정신에 있는데, 그 뿌리는 니힐리즘이다. 그런 채만식 문학에는 그가 좋아했던 투르게네프의 영향이 적지 않게 감지된다.

채만식의 소설들은 투르게네프의 그것들처럼, 대체로 주인공의 성격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며,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대립구도가 선명한 편이다. 투르게네프의 대표작 『아버지와 아들』에 등장하는 '바자로프'는 채만식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비극적 세계관인 니힐리즘을 체현한 인물이다. 채만식이 4-5번 읽었다고 거듭 밝힌 투르게네프의 『엽인일기』는 옴니버스식 구성의 단편모음집인데, 인물 중심의 단편들,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의 선명한 대립 구도, 풍자 기법의 활용 등에서 채만식의 단편집 『잘난 사람들』과 매우 흡사한 구성을 보인다. 「소망」, 「치숙」,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잘난 사람들』 등에 나타난 풍자의 기법과 빼어난 언어감각은 투르게네프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빼닮았다. 투르게네프가 『엽인일기』, 『봄물결』, 『첫사랑』 등에서 보여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연묘사는 채만식의 산문들에서 봄과 고향, 시골농촌 묘사 부분에 조선적인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투르게네프의 『첫사랑』과 『봄물결』 등의 중편소설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서사전개가 특징인데⁷³⁾, 이런 면모도 채만식의 『태평천하』나 「소망」,

73) 『첫사랑』(1860)은 투르게네프가 말년까지 가장 만족해한 대표작이다. 『첫사랑』은 도스토옙스키가 투르게네프를 부러워한 이유가 된 작품인데, 서사의 흐름이 주인공 마음결의 변화를 따라 너무도 자연스레 전개되어 많은 러시아 문학연구자들도 투르게네프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중편이다. 『첫사랑』에는 16세의 소년 '블라디미르가' '지나이다'라는 매력적인 연상 여인을 연모하면서 겪는 첫사랑의 순결한 정열과 흥분, 내적 혼란이란 마음의 파동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중편소설이다. 투르게네프가 이 작품을 특히 만족해한 것은 서사의 전개에 '작위적인 데가 전혀 없고', 작품 자체가 '인간의 고뇌하는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김학수, 「투르게네프의 생애와 문학」, 『사냥꾼의 수기/첫사랑/산문시』, 567쪽; 김학수, 「투르게네프의 생애와 문학」, 투르게네프 저, 김학수 역(2016), 앞의 책, 567쪽; 전희직, 「투르게네프의 생애와 작품세계」, 투르게네프 저, 전희직 역, 『첫사랑·전날밤』(혜원출판사, 2003), 438쪽.

「순공 있는 일요일」, 「낙조」 등에서 비슷한 정도로 목도된다.⁷⁴⁾ 즉, 채만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조선의 억압과 혼란 속에서, 농노해방을 거쳐 혁명 전야에 이른 러시아에서 배태된 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을 사숙함으로써, 인물의 성격화, 풍자와 비판의 정신, 유려한 서사전개, 화려한 말문장 구사에 많은 참조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르게네프와 채만식 문학 사이에는 19세기 말 러시아와 20세기 전반기 조선이 처한 상황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투르게네프는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처녀지』 등에서 이상적인 사회주의적 혁명가상들을 제시하였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작품 내에서 일찍 사망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투르게네프는 오히려 실패한 혁명가를 사랑한 여성주인공의 형상화에서 뚜렷한 성취를 보였고,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1920-1930년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투르게네프 작품의 그러한 이상화된 여성상에 열광하였다. 『그 전날 밤』의 ‘엘레나’나 『처녀지』의 ‘마리안나’가 그들이다.

한편, 채만식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회주의에 감염된 인텔리들은 존재감도 미미하고 구체적인 실행력도 결여된 무기력한 존재들로서 현실추수적인 인물에 의해 풍자 대상으로 전락해간다. 예를 들면, 『태평천하』의 ‘윤종학’이나 「치숙」의 ‘오촌 고모부’는 부정적인 인물들에 비해 작품 내 비중도 적고 서사의 원경으로 밀려나 있어 실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채만식과 투르게네프는 모두 지주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지만, 투르게네프는 지혜로운 농민이나 농노, 민중 출신의 이상적인 청년들에게서 러시아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반면, 채만식의 작품에는 온전히 긍정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만식의 문학은 지주형 부르주아 계층의 해체 이후를 담당할 역사의 새로운 주체세력을 상징하지 못함으로써 세계와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에서 끝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산문들에서 ‘봄’의 찬양과 희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해방공간에서 자기반성적인 작품들을 내어놓고

74) 채만식의 「소망」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치숙(痴叔)」(《동아일보》, 1938년 3월 7-14일자)과 내용적으로 쌍을 이루는데, 평론가들은 「치숙」에 주목한 반면, 작가는 “작품의 짜임새로 보든지 무얼로든지” 「소망」이 더 낫다고 자평하였다. 작가가 말하는 「소망」의 강점은 1인칭 화자의 서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데 있다. 채만식, 「사이비 농민 소설」, 『조광』(1939. 7.), 『전집 9』, 522쪽.

있다. 투르게네프가 니힐리즘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다룬 『아버지와 아들』의 결말에 ‘봄’의 도래,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점진적 변화와 상호이해,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함을 통해 진정한 러시아의 봄날을 맞을 꿈을 버리지 않았듯이, 채만식이 ‘춘양’에 대한 대망을 포기하지 않음은 속죄를 통해 마음의 포박에서 놓여남으로써 내면의 봄을 맞거나, 나아가 민족구성원들로부터 이해받고 그들과 새롭게 소통하는 진정한 ‘봄’을 맞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투르게네프의 니힐리즘이 단일한 관념체계에 대한 단순한 부정을 넘어서 역설적이게도 보다 더 큰 보편성인 유기적 전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갈망에 가 닿고 있듯이, 투르게네프에게서 영향을 받은 채만식의 문학은 기성의 인식체계를 전면 부정한 니힐리즘에서 출발하였으나 해방 이후 새로운 가치의 싹을 자기 내부에서 찾고자 함으로써 성찰적 니힐리즘으로 변모해간다. 그의 대일협력은 일제강점기 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것이었을 뿐, 그의 본의는 조선사회의 현재적 불합리와 폐습을 극복하고, ‘봄’으로 상징되는 보다 따뜻하고 이상적인 조선사회의 건설에 있었다. 투르게네프가 유물론이나 사회주의,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단일한 이념과 교의를 부정했던 것은 그것들이 가진 모호한 추상성 때문이었다. 투르게네프는 니힐리즘을 통해 정전화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유기적 전체를 지향하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고 싶어 하였던 것이다. 반면 조선의 채만식은 세계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자기 내부에 ‘대타자’를 대신할 자아상, 내재화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정립함으로써 니힐리즘을 스스로 초극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개벽』, 『문장』, 『별건곤』, 『삼천리』, 『여성』, 『조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채만식, 『채만식 단편집』. 학예사, 1939.

_____, 『잘난 사람들』. 민중서관, 1948.

_____, 『채만식전집 1-10』. 창작과 비평사, 1989.

투르게네프 저, 김학수 역, 『사냥꾼의 수기/첫사랑/산문시』. 동서문화사, 2016.

투르게네프 저, 전희직 역, 『첫사랑·전날밤』. 해원출판사, 2003.

투르게네프 저, 라승도 역, 『봄 물결』. 지만지, 2008.

투르게네프 저, 반광식 역, 『첫사랑·아버지와 아들』. 일신서적출판, 1995.

투르게네프 저, 김학수 역, 『처녀지·루딘』. 범우사, 1998.

투르게네프 저, 이철 역, 『아버지와 아들·귀족의 보금자리·엽인일기』. 휘문출판사, 1977.

2. 단행본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 『한국근대문학의 러시아문학수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병욱 외 엮음, 『도이치 문학 용어 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병철, 『서양번역문학논저연표』. 을유문화사, 1978.

_____,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8.

김윤식, 『한국근대문학론』. 한길사, 1982.

_____,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4.

D. S. 미르스끼 저, 이항재 역, 『러시아문학사』. 문원출판, 2001.

마르틴 하이데거 저, 박찬국 역, 『니체와 니힐리즘』. 철학과 현실사, 2000.

박경수 편, 『안서 김억 전집 5-문예비평론집』. 한국문화사, 1987.

박정선 편,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임화 산문선집), 역락, 2012.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이항재, 『소설의 정치학: 투르게네프 소설 연구』. 문원출판, 1999.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최동규, 『투르게네프 비교문학 비평연구』. 한국문화사, 1998.

3. 논문

손성준, 「투르게네프의 식민지적 변용: 〈사냥꾼의 수기〉와 현진건의 단편소설을

-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54호, 2014. 4, 329-368쪽.
- 엄순천, 「한국문학 속의 러시아문학」. 『인문학 연구』 제35권 1호, 2008, 93-121쪽.
- 이종진, 「한국문학의 도스토옙스끼 수용과 그 현재적 의미」. 『인문과학』 29집, 1999, 301-302쪽.
- 정호용,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주체의 문제」. 『외국문학』 18, 열음사, 1989. 3, 232-248쪽.
- 최동규, 「영웅의 사랑과 죽음: 『그 전야(前夜)』의 주제구성」.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4권, 2016.
- 최인선, 「니힐리즘: 새로운 지식인의 형상: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노어노문학』 제27권 제3호, 2015. 9, 119-146쪽.

국 문 초 록

서양의 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을 꺼렸던 채만식은 유독 여러 수필에서 어린 시절부터 투르게네프 작품을 탐독했고, 특히 『엽인일기』는 네다섯 번 읽었으며 자신의 문학은 그것으로부터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애호되었는데, 채만식은 투르게네프의 인물(성격) 중심의 소설구성과 풍자기법의 활용, 서사진행의 자연스러움, 예민한 언어감각, 서정적인 자연묘사, 농촌의 지향과 봄에 대한 갈망, 니힐리즘적 정조 등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물(성격)이 작품을 끌고 가는 구성방식은 『태평천하』,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소망」, 「낙조」에서 확인된다.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의 선명한 대비 속에 특히 지주를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고, 또 사회주의적 성향의 지식인은 개혁적이지만 실행력이 결여된 인물로 그려져 있음도 양자의 공통적 특징이다. 기성의 모든 가치체계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 니힐리즘적 세계관과 풍자기법의 활용은 채만식과 투르게네프 문학의 친연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투르게네프는 지혜로운 농노나 농민, 혹은 민중 출신의 건강한 청년에게서 미래 러시아의 가능성을 읽어내었지만, 해방 후 채만식은 일제 말 대일협력에 대한 자기반성적 문학창작에서 멈추고 있다. 끝내 그의 문학이 낙관적인 전망 획득에 실패한 것은 해방공간에서의 새로운 변혁적 주체를 발견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인물의 성격화, 풍자의 활용, 유려한 서사전개, 화려한 말문장의 구사 등에서 매우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여 한국근대문학사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투고일 2017. 9. 20.

심사일 2017. 9. 28.

게재 확정일 2017. 11. 27.

주제어(keyword) 채만식(Chae Mansik), 투르게네프(Turgenev), 니힐리즘(nihilism), 풍자(satire), 지식인(intelligentsia), 러시아문학(Russian literature), 영향관계(an effect relationship)

Abstracts

A Study on the Effect of Turgenev in the Literature of Chae

Mansik

Kim, Mee-young

This article reveals how uniquely Chae Mansik portrayed bourgeois realism with satire and nihilism in his work. It was found that since middle school, Chae read all of Turgenev's works and was unconsciously influenced by them. In particular, Turgenev'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Yeop-In-il-gik* 『獵人日記』, 1852) was found to be highly influential. Chae's novels are characterized by techniques of satire, nihilism as the spirit or mood and praises of spring, their narrative focus on the main characters, graceful narrative flow, and vivid descriptions of nature and rural scenery.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prevalent in Turgenev's literature despi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fe of Chae and his. Turgenev's novels envision the potentialities of the Russian society's future through the characters of wise serfs, farmers, and populace rather than greedy landowners or intellectual revolutionists. However, Chae's novels do not portray any characters that positively influenced reformat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f Korea. Instead, Chae immersed in creating self-reflective novels on his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ists i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